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6월 23일에 Sunday School VBS가 있습니다.
 - 일시: 6월 23일 오전 9시—오후 2시
 - 오늘 식사 후 교사훈련이 있습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6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김현정 권사 (시 9:9-20)

이번 주 친교: 임미숙 집사, 이현주 집사

다음 주 친교: 최경자 집사, 이영순 권사

제18권 24호

2018년 6월 17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3:1-16** -----인도자

설교(Sermon)----- “**예수의 이름이**”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 ----- 149장 (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20편 ----- 김종한 장로

찬양(Choir)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 3:1-16**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예수의 이름이**”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405장 (통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행 2:14-26; 32-33; 36-42)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요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사와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앞날의 예언이 다가 아니고 진짜 목적은 그 징조를 보았으니 너무 늦게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단지 방언 현상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된 표적들이 – 성령 강림 뿐 아니라 – 예수의 일생과 사역, 특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 날”의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의 증언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같은 성령께서 요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깨닫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증언하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불러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고”하며 예수의 사죄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들도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 받은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하늘나라에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얘기가 되게 하십니다. 요엘의 그 때가, 베드로의 지금이, 바로 나의 어찌할고가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던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관한 말씀이, 아흔아홉 핑개치고 한 마리 찾아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내가 바로 나중 된 자고,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인 것을, 그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되는 은혜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받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성령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냐고, 왜 귀를 닫으시냐고 우리 심정을 대신해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부르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중요한 이야기와 하찮은 이야기가 있고, 이웃의 간절한 사정도 답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찮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괜히 길을 잃어 나머지 양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아가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사야 할 귀한 영혼이 됩니다. 합리적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말이 안되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